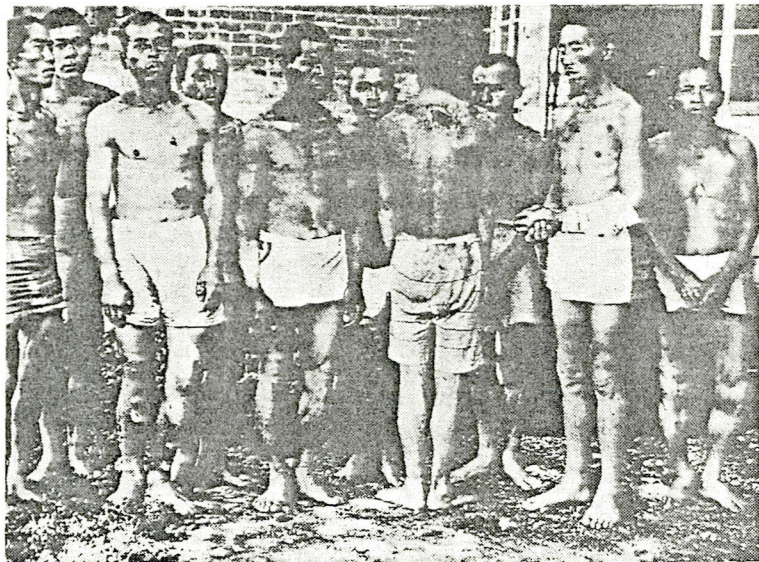


84.6.4 厚瓦



태평양전쟁 당시 日本 北海道로 강제징용됐던 한국인 노동자들이 학대와 굶주림에 지쳐 도주했다가 다시 잡혀온 모습을 담은 당시 사진.

日帝한인징용 33萬6千명

日정부 공식문서 첫 확인

태평양전쟁 중 日本의 강제징용됐던 한국인 노동자가 33만 6천명인 것을 공식문서에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. 이 수치가 밝혀진 것은 이 6천명의 탈출자도 일본 군에 징용됐다가 중환자

「조선인송환계획서를 통해 밝혀진 것이다. 이 문서가 日의무장이 보관했다가 최근 공개된 것이다. 이 문서에 따르면, 1945년 8월 15일 日의 패배 후, 日 정부는 33만 6천명의 한국인 징용자를 포획했다. 이 중 3만 6천명은 1945년 11월 13일 부터 각 지방청에서 재검정, 관장, 수송을 담당하는 자들이 이 동양자본의 노예를 통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. 在日사화자인 하나조(花造)대화의 姜在彦(姜在彦)은 「해방자의 징용자수가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, 특히 징용자수까지 밝혀진 것은 큰 의미가 있다」고 말했다.

(東京=李東宣)

送還징병자 3만7천명 해방前在日韓人百66萬

한국에 송환된 징병자수는 3만 7천 7백 50명이었다. 이 중 1만 4천 500명 정도는 부가 패전후인 45년 10월 23일 韓日交還을 계기로 부(GHQ)에 제출한

환자에서 44만 4천 4백 66만 8천 8백 40%인 67만 6천 400명이 1945년 10월 23일 韓日交還을 계기로 한국에 송환된 것으로 나타났다. 한국인 전체를 강제징용

자수로 보면, 韓戰을 빛을 띠었다. 日정부문서는 이 문서에서 전체송환대상자 1백 4만 3천 7백 명에 이 미 10월 초까지 15만 4천 명을 배편 100여 회 한국에 송환했다. 이 수치 88만 9천 7백 명을 △징용관 인 △간제징용자 △일반 인의 수사로 조기 송환하

졌다. 日정부는 특히 국외 을 희망하는 한국인이 한꺼번에 몰려 출국이 한 해자 45년 11월 13일 부터 각 지방청에서 재검정, 관장, 수송을 담당하는 자들이 이 동양자본의 노예를 통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. 在日사화자인 하나조(花造)대화의 姜在彦(姜在彦)은 「해방자의 징용자수가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, 특히 징용자수까지 밝혀진 것은 큰 의미가 있다」고 말했다.